

'8월의 독립운동가'에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

남빛나라 입력 2021.07.30. 09:23

손기정 선수 가슴의 일장기 지우고 보도



[서울=뉴스시스] 왼쪽부터 송진우, 여운형, 이길용 선생.. (제공=국가보훈처). 2021.07.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 남빛나라 기자 = 30일 국가보훈처는 이길용·송진우·여운형 선생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의 실행자와 언론사 책임자들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936년 8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조선 청년 손기정은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일제 식민지배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에게 "조선의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큰 자부심과 희망을 줬다.

하지만 시상식에서는 '기테이 손'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호명되고 일장기가 게양됐다. 여기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와 손기정은 고개를 떨궈야 했고, 훗날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상식'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가슴에 나라 잃은 한을 품고 혼을 불살라 이룬 조선인 손기정의 우승마저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된다"라며 민족지 언론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 선생은 미술 담당인 이상범 기자와 함께 손기정 가슴의 일장기를 지워 버렸다.

이후 총독부에 의해 이길용 선생과 이상범 기자 등 5명은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겨우 풀려났지만 일제의 압력으로 강제로 기자직에서 면직됐다.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송진우 선생은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민족지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1937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총독부로부터 동아일보 정간 협박에 맞섰다.

1933년 2월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부임해 이끌어 오던 신문인 조선중앙일보는 결국 복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

정부는 이길용 선생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송진우 선생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여운형 선생에게는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이어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